

Vol. 137

HANSEN 한센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2026 7·8 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 HARMONY** — 한센가족과 HARMONY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비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미션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사업목표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사업소개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한센인
복지사업

한센인
인권증진 사업

기획·홍보
사업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총연합회 공식 SNS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함께 걸어온 길, 함께 만들어갈 희망

04 스페셜 리포트

- 국가인권위원회, 한센인 인권 증진 위한 현장방문

07 한센 리포트

- 치매예방교육
-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2026 정착마을 실태조사
- 대중매체 모니터링
- 중간성과 보고회 및 집행점검 교육
- 한센 현안 사항 협의
- 故 육영수 여사 52주기 추모식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한센탐방

26 지부는 지금

- 서울·중부지부

28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한센공감

30 함께하는 한센

- 소소한 일상의 행복바이러스_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 가는 세월_신재문(영락마을 대표)
- 한센인 2세에서 섬김의 목회자로, 24년을 뿌린 열매_김종윤(익산마을)
- 소설 '올무에 걸린 아기사슴' 출판 후기_오문수

40 소통하는 한센

- 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성다미안회'

한센이모저모

44 한센병 바로알기

- 한센병, 궁금해요!
-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50 정보알리미

- 호르몬 대사 회복, '당뇨병' 관리의 첫걸음
-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 7가지
- 요즘이책

60 독자들의 공간

- 치매 예방 학습자료
- 한센 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제24권 제4호 통권 제137호 발행일 2026년 7·8월호 발행인 이길용 편집인 우홍선 발행처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디자인앰퍼샌드 격월간 비매품
※ 「한센」은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함께 걸어온 길, 함께 만들어갈 희망



한센 회원 및 함께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푸른 생명력이 더욱 짙어지는 계절 속에서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언제나 ‘회원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한센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늘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을 되새기며, 회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센인의 삶과 인권 현장을 직접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은 한센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매예방교육과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 교육 등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정착마을 실태조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생활 여건과 복지 실태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자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 속 잘못된 표현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과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했던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문제 역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한센 회원 및 함께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인사,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모일 때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걸어오신 삶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역사이며, 오늘의 총연합회는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복지와 권익 향상, 그리고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계절입니다. 건강을 잘 살피시고, 늘 웃음과 행복이 함께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국가인권위원회, 한센인 인권 증진 위한 현장방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의 ‘인권현장방문’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 학교, 병원 등 현장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제도이다.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7월 8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인권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

이번 인권현장방문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한센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한센인 당사자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센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을 비롯해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송정하 센터장, 한센인권변호단 이정일 변호사와 서중희 변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설 현황 브리핑 ▲질의응답 ▲한센 인권 정책 관련 의견 청취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되었다.

센터의 현황 브리핑과 질의응답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과 입소자의 고충 해소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어 한센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직접 둘러보는 시설 라운딩도 진행하였다. 또한 한센인 2세 피해 보상, 소록도 보존 방안, 한센시설의 비한센인 부부 입소 문제 등 한센인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인권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센인의 역사가 단순한 질병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 격리와 단종, 임신 중절 등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역사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고령 한센인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의료·복지·돌봄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길용 총연합회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이 한센인의 인권 회복과 권익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센인의 인권 회복과 권익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총연합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한센인 2세 피해 조사를 추진했으며, 부모와의 관계 단절, 강제격리,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 취업 차별 등 4,859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한센인 2세들이 오랜 기간 다양한 차별과 인권 침해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격리 정책으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법 제정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며 명예회복과 복지증진을 도모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에 한센인 2세들이 겪어온 구조적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정한 사과와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고통을 보듬고 실질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 보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총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한센인 2세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한센인권변호단과 함께 피해 실태조사 및 면담을 준비하던 가운데, 이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한센인 2세 피해 실태조사를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총연합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2027년 국가인권위원회 추진사업으로 한센인 2세 피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센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센인 2세에게도 한센인과 동일하게 생활지원금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센인 인권 관련 정책 권고와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총연합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시설 입소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예방교육으로 건강한 노후와 삶의 활력 제공

낙원·대명마을 치매예방교육 15회기 성황리에 마무리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낙원마을(대표 정경욱, 6월 26일 종강)과 대명마을(대표 윤철수, 7월 30일 종강)에서 마을별 15회기의 치매예방교육을 운영하고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센인 어르신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회기별 교육은 인지훈련과 신체활동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낙원마을과 대명마을 어르신들은 매회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배우고, 규칙적인 인지 활동과 신체활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교류와 정서적 유대감도 한층 깊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치매예방교육이 삶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줬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는데 교육을 받은 뒤 주민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진 것을 느꼈다. 강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마을을 찾아와 배움의 기쁨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두 마을 한센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치매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한센인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치매예방교육을 받으면서 지내보니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하루하루
기다려 진다.

선생님들도 예쁘고, 말도 예쁘게 잘해 주셔서
교육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

벌써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니 아쉽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 낙원마을 채성종 교육생이 남긴 소감 중 -

● 대명마을 치매예방교육



● 낙원마을 치매예방교육





낙상 걱정 덜고, 생활은 더 편리하게 황금마을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성료

한센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큰 결실을 보았다. 총연합회는 황금마을(대표 이덕구) 한센인을 대상으로 총 15회기에 걸쳐 운영한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을 지난 7월 15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취미·여가 활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노년기 삶의 질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상 예방 및 건강 증진’ 교육을 시행했으며, 신체 기능과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은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활동의 장이 되었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회기가 거듭될수록 황금마을에는 더욱 밝고 생기 있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법’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스마트폰 기본 조작부터 키오스크 이용 방법까지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해 참여자들의 이해도와 활용 능력을 높였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15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교육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며 배우기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이제는 직접 활용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동보장구 안전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총연합회는 6월 19일 삼청마을(대표 채용태)과 7월 21일 신생마을(대표 최정기)에서 한센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추진했다.

먼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올바른 사용법과 교통법규, 사고 예방 및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을 전동보장구 전문가가 정착마을 한센인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과 ‘나와 이웃을 지키는 안전 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수칙을 상세히 전달했다.

또한 교육 후에는 한센인 어르신들이 사용 중인 전동보장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했으며, 안전 점검표를 작성해 점검 결과를 안내했다. 현장에서 가능한 정비 서비스를 즉시 제공해 어르신들이 전동보장구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전동차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동안 정비를 받기가 어려웠다. 마을까지 직접 찾아와 안전교육과 정비를 해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까지 알려줘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전동차를 이용할 때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삼청마을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신생마을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2026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본격 추진

총연합회는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의 생활환경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한센인 특성에 맞는 정책과 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026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1개 한센인 정착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착마을 한센인의 일반 현황과 생활환경, 복지 욕구,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향후 한센인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마련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7월 7일 각 지부에 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각 지부를 통해 설문지를 취합했다. 이후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81개 정착마을 대표와 전화 면담을 시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정리와 통계 분석 등 단계별 검증 과정을 거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사 문항은 정착마을 한센인의 현재 생활 현황을 비롯해 향후 필요한 지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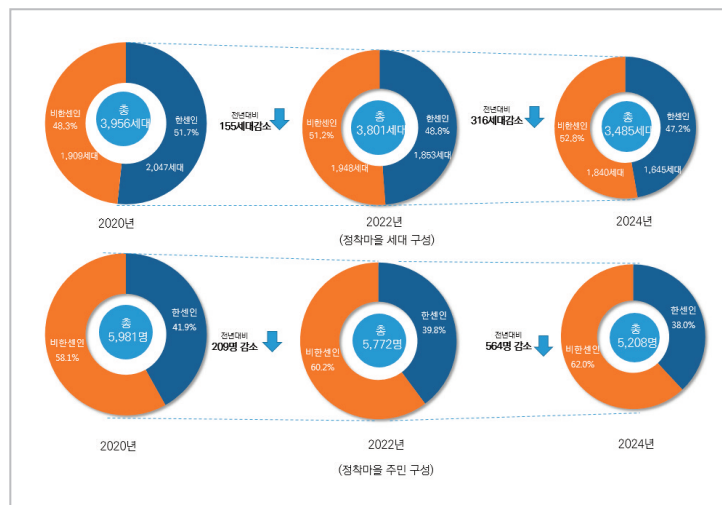
한센인 정착마을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복합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전 실태조사에서도 생활 여건과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확인된 만큼,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사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총연합회는 올해 조사에서 한센인이 처한 의료·복지 사각지대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총연합회에 바라는 사항' 문항을 새롭게 포함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센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길용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착마을 한센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한센 관련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한센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는 설문 취합과 전화 면담, 데이터 분석 및 검증 과정을 거쳐 2026년 12월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단위 : %, 세대, 명



▲ 2024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정착 인구 구성 현황

올바른 언어가 만드는 변화 ... 한센인 인식개선 위한 미디어 모니터링 추진

언어는 단순히 생각과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한 사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과 인권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오래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의도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고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재생산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정보와 사회적 오해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한센인에 대한 편견을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중매체 속 올바른 용어 사용이
편견을 바꿉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인터넷 기사, 방송, SNS 등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해
한센병과 한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올바른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나병	→ 한센병
나환자	→ 한센인 (또는 한센병 환자)
문○병	→ 한센병
문○아	→ 한센인

올바른 표현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한센병은 조기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용어 사용이 편견과 차별을 줄입니다.

대중매체 모니터링
기사·방송·SNS 등
지속적 점검

잘못된 표현 점검
차별적·편견 조장 표현
확인 및 개선

사회적 편견 해소
한센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낙인 해소

올바른 인식 확산
정확한 정보 전달로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한국한센총연합회

이에 총연합회는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 확산과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언론 및 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디어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과 미디어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센병과 한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책임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매체에서는 여전히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반영된 표현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감과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총연합회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잘못된 정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언론사와 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기사와 온라인 콘텐츠에서 표현 수정과 관련 설명 추가, 올바른 용어 사용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특정 단어나 문구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사회에 형성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며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올바른 언어 사용은 한센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존중과 배려가 담긴 표현이 확산될 때 한센인은 질병의 이미지가 아닌, 존엄과 권리를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총연합회는 언론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통해 차별적 표현과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질병의 이력이 아닌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6월~7월 대중매체 모니터링 현황 : 15건

언론사명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베이비타임즈	2026-06-08	[변요한목사 시론] 시기(猜忌)와 질투(嫉妬)의 결과	문O병	한센병
jibs	2026-06-10	아프리카 말라위의 나이팅게일 제주 출신 ‘백영심’	나병원	한센병원
약업신문	2026-06-10	큐리언트 남기연 대표 “텔라세백, 결핵 넘어 글로벌 항감염제로 완성할 것”	나병	한센병
인천투데이	2026-06-16	[연재] 박인환과 ‘한하운 시조’ 적기가 사건 1	문O이	한센인 병기 설명추가
아트인사이트	2026-06-18	[오피니언] 시장통 헌책방에서 열린 뜻밖의 미학 강연 [문화 전반]	나환자	한센인
경남도민일보	2026-06-19	[종교인 단상] 진보에서 기득권으로	나병	한센병 병기 설명추가
뉴스토마토	2026-06-23	[뉴스토마토프라임] 권정생 생각	나병	한센병
스페이스	2026-06-23	일상의 풍경을 설계하는: 임태형	나병	한센병 병기
인천투데이	2026-06-25	[연재] 박인환과 ‘한하운 시조’ 적기가 사건 2	문O병	한센병
미디어제주	2026-06-20	[제주퀴어프라이드 D-7]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퀴어프라이드에 참여합니다”	나병환자	한센병 병기
치과신문	2026-07-09	우리 모두는 중생이다	문O이	한센인
단디뉴스	2026-07-09	[임요셉 칼럼] “질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병환자	한센병 병기
표표人人	2026-07-10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리액션(reaction)과 라포(rapport)	나병환자	한센인
남도일보	2026-07-12	[김동백의 인문산책] 소록도에서 되찾은 사랑	나환자	한센병
한겨레	2026-07-13	[32]‘우월순 길’의 주인공, 제중원 제2대 원장 우월순 [도로명 속 남도 역사인물]	나환자	한센병

중간성과 보고회 통해 사업 추진 방향 점검

총연합회는 7월 23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간성과 보고회 및 집행점검 교육'에 참석해 한센인의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상반기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와 교육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한센병연구소,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등 한센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각 기관은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센사업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집행점검 교육에서는 '보조금 예산집행 점검계획 및 지적사례'를 주제로 보조금의 투명하고 적합한 집행을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총연합회는 이번 중간성과 보고회와 집행점검 교육을 바탕으로 하반기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한센인의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국회와 한센 현안 해결 위한 협의 이어가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과 면담

총연합회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만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증액 등 주요 한센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2012년 말 최초 지급된 이후 14년간 세 차례만 증액됐다. 이에 총연합회는 타 과거사 피해자 지원과의 형평성과 한센인의 고령화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고흥군의 소록도 개발계획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한센인 예외조항 적용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과 면담을 갖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증액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센인의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故 육영수 여사 52주기 추모식 거행



총연합회는 8월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故 육영수 여사 서거 52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길용 회장을 비롯한 총연합회 임직원과 한센인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한센인들을 향했던 故 육영수 여사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분향을 마친 뒤 경건한 묵념으로 고인의 넋을 기리며, 생전 한센인들에게 건넸던 자애로운 손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故 육영수 여사는 생전, 한센인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을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한센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를 나누며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행보를 보여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번 52주기 추모식과 맞물려 올 추석 극장가에도 故 육영수 여사 서거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찾아와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허진호 감독의 신작 《암살자(들) /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주연》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영부인 저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5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는 고인의 넋을 기리는 계기와 함께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연합회는 故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1974년부터 매년 추모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고인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힘쓰고,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6. 7. 31. 기준 150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143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 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청원마을에 전한 따뜻한 나눔... 한센가족 위한 사랑 실천



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지부장 박우택) 산하 청원마을(대표 장경선)은 지난 6월 10일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 여성회(회장 김은주)로부터 물김치 10통을 후원받아 마을 주민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물김치는 청원마을 주민들에게 고루 전달되어 일상에 작은 힘이 됐다.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 여성회는 지난 6월 1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한센가족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시민들과 함께한 이번 바자회에서는 여성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판매했으며, 수익금 전액을 한센가족 지원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장경선 청원마을 대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 덕분에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라며 “정성껏 후원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 여성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들에게 소중한 마음까지 함께 전달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 여성회는 공동체 행복지킴이 활동과 환경정화,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손끝으로 만든 즐거움, 마음으로 전한 나눔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타일공예 냄비받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형형색색의 타일을 직접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냄비받침을 완성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어르신들은 작은 타일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에서 손의 소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다양한 색과 모양을 조합하며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했다.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는 활동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7월 20일에는 충북한의사회의 지원과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의 연계를 통해 물티슈와 점보롤 화장지를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은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생활 편의를 위한 나눔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충북한의사회와 소중한 후원을 연계해 준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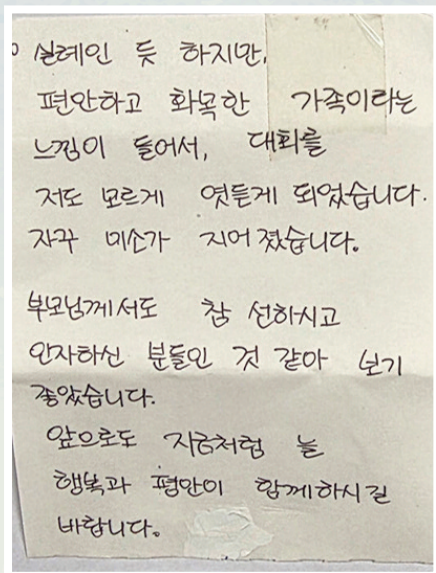
소소한 일상의 행복바이러스

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부부는 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오랜만에 조용한 카페를 찾았다.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딸들의 수다를 듣고, 또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딸들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힘겹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단절된 노년의 삶 속에서 남은 세월에 대한 막연한 무기력함도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자식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노년의 삶에 스며들어 커다란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바이러스’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딸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많은 덕담을 전했다.



▲ 카페에서 받은 작은 쪽지 한 장.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분이 자리를 떠나며 조심스럽게 우리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놓고 갔다. 혹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불편하게 한 것은 아닌지 순간 긴장된 마음으로 쪽지를 펼쳐 보았다.

하지만 쪽지에는 질책이 아닌 따뜻한 격려와 축복의 글이 담겨 있었다. 화목한 가족이 서로를 아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내용이 었다. 짧은 몇 줄의 글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타인에 대한 작은 배려와 관심 역시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는 또 하나의 행복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내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행복의 날개를 달아준 사랑하는 네 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가는 세월

신재문(영락마을 대표)

많은 사람들 왔다 떠나는 세상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만족 찾기 위해 달려가지만
찾지도 못한 채 떠나가고 말았네

없는 만족 찾다
욕심과 함께 쓰러진다면
함께 가는 동무들에게
비웃음만 당하리라

세월 따라가는 인생
종착역 가까이 다가오는 데
가는 길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만 취하여 사네

세상 물질 좋다 하며 사는 것도 좋지만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 채 놓고 갈 것을
미련 없는 세상 것 다 버리고
영원한 것 찾아가련다

한센인 2세에서 섬김의 목회자로, 24년을 뿌린 열매

김종윤(익산마을)

7월 초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날, 필자는 익산 베엘교회에서 문선식 목사를 만났다. 그의 삶을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한 사람의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나 큰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였다.

문 목사는 신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었다.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그의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족의 한센병 병력을 예비 사돈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문 목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다.

누구나 부모라면 자녀의 앞길이 막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 목사는 자신의 가정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였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다. 한센병 후유증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고, 사회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도 자연스럽게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의 마음을 키워 주었고, 훗날 목회와 복지사역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24년 전, 그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익산 한센인 정착마을로 들어갔다. 젊고 건강했던 그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감당했다. 당시 어르신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병원 동행이었다. 병원 예약과 진료, 검사, 입원 절차는 물론 보호자의 역할까지 도맡아 수행했다.



이동목욕 서비스도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관련 서비스가 거의 없었기에 낡은 승합차를 직접 개조해 보일러와 욕조를 설치하고,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왔다. 지금은 병원 동행과 이동목욕 서비스가 보편화되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쉽게 시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섬김이었다.

그가 가장 보람 있게 기억하는 사역은 노인대학과 한글학교 운영이다. 당시 일부 어르신들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해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 목사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글자를 하나씩 깨우쳐 가는 어르신들의 기쁨과 한글을 익힌 후 일상에서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으로 남아 있다.

문 목사는 이러한 사역을 약 3년 반 동안 자비량으로 감당했다. 그러던 중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원들을 채용해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복지사역을 계속해야 하는가, 목회에 전념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돌보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또 하나의 목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섬김은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큰 나무로 자라났다. 지금은 8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24년 전 심었던 작은 섬김의 씨앗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쉼과 평안을 얻는 큰 나무가 되었다.





한센인 2세라는 삶의 배경은 문선식 목사에게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명의 출발점이었다. 그의 삶은 상처가 은혜가 되고, 약함이 섬김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그는 한센인 2세라는 삶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당당하게 사명의 길을 걷어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 또한 그의 삶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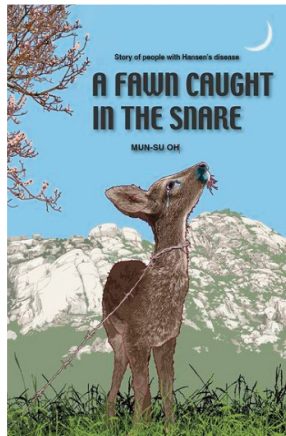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소설 '울무에 걸린 아기사슴' 출판 후기

오문수



▲ 국문 버전



▲ 영문 버전

지난 4월 30일 소설 '울무에 걸린 아기사슴'을 출간하고, 5월 9일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서울, 부산, 광주,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일본 나가사키에서 온 기무라 선생님, 50년째 산청 성심원에서 한센인을 돌보고 있는 유의배 (Uribe) 신부님, 한국IDEA협회 정상권 회장님 등 뜻깊은 손님들이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출판기념회 소식은 <다음>과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10여 개 언론에 소개됐으며, '울무에 걸린 아기사슴'은 전국 교보문고에 입점했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시립도서관과 여수지역 모든 도서관, 전남대학교·순천대학교·목포대학교 도서관에도 소장되었다.

필자는 테니스를 좋아해 국동테니스클럽 제2대 회장을 지냈다. 출판기념회에는 국동테니스클럽(회장 김양현) 회원들도 계셨고, 화환도 보내왔다. 한달여가 지난 6월 중순경 김양현 회장으로부터 “여수경찰서장님이 작가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전갈이 왔다.





▲ 여수경찰서 장원석(우측) 서장과 국동테니스클럽 김양현(좌측) 경감과의 기념 촬영

7월 2일 여수경찰서를 방문해 장원석 서장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청사 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과 ‘힐링갤러리’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경찰서를 어렵게만 생각했던 선입견과 달리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계단에 적힌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라는 문구는 오래 기억에 남았다. 장원석 서장은 “따분하고 경직된 직장 문화를 미술 작품을 통해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다.

소설 6장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하일은 해방 전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한센 병에 걸려 도쿄의 국립한센병요양소인 전생원에서 생을 마쳤다. 필자는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일본을 방문했고, 그때 영어교사 출신인 기무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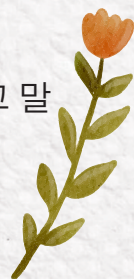
◀ 소설 집필을 위해 2024년 4월 8일 일본 도쿄 전생원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 왼쪽부터 전생원 김귀분 씨 (재일교포 3세), 기무라 선생님.

기무라 선생님은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해 강연해주셨으며, 이후 메일을 보내왔다. 선생님은 현재 '울무에 걸린 아기사슴'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이 작품은 소록도를 통해 식민지 시대 한센인들의 아픔과 역사를 깊이 이해하게 해 준 소중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출판기념회와 책 내용을 일본의 인권 소식지에 소개하며, 많은 일본 독자가 함께 읽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해왔다.

소설 출간 이후 내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5년 동안 원고를 쓰고 영문판을 준비하며 컴퓨터와 씨름한 탓에 좌골신경통까지 얻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보람이 더 크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레지나 브렛은 “성장하는 노인이 죽어가는 젊은이보다 낫다.”라고 말했다.

올해 일흔셋이 된 나 역시 아직도 배우고 있다.
죽는 날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다.



42년째 이어온 따뜻한 동행 성다미안회, 소록도에 사랑을 전하다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성다미안회(회장 강승표)는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제37차 소록도 나눔활동’을 펼치며 한센인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올해 나눔활동에는 초·중·고교생을 비롯한 청소년부터 90세를 바라보는 어르신까지 제주도민 130여 명이 참여했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록도 곳곳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살피며 구슬땀을 흘렸다.

성다미안회는 벨기에 출신 성 다미안 신부가 하와이 몰로카이섬에서 한센인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삶을 본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1984년 회원 24명이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병에 대한 교육과 피정을 함께한 것을 계기로 소록도와 인연을 맺었으며, 코로나 19로 잠시 활동이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42년 동안 변함없이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연인원 4,800여 명의 제주도민이 참여하며 소록도 주민들과 가족 같은 인연을 이어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중앙리와 신생리, 동생리 등 소록도 4개 마을과 국립소록도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미용팀은 병원 입원 환자 40명을 포함한 주민 100여 명에게 커트와 파마, 염색 등 이·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1년간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 이·미용 봉사 중인 성다미안회원들의 모습

소록도 나눔활동 초기부터 함께해 온 여혜숙 미용팀장은 “짧은 일정이라 늘 아쉽지만, 한센인들과의 아름다운 인연에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생활지원팀의 활동도 이어졌다. 사전 신청을 받은 64가구를 방문해 낡은 방충망 256개를 교체하고, 에어컨과 선풍기 점검 및 수리를 실시했다. 또한 장판팀은 35가구의 방과 마루를 새 장판으로 교체했고, 도배팀은 9가구의 벽지를 새롭게 바르며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 도배 봉사 중인 성다미안회원들의 모습

특히 소록도 주민 대부분은 고령으로 한센병 후유증을 안고 생활하고 있어 방충망 교체나 에어컨 필터 청소, 냉장고 관리와 같은 일상적인 집수리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다미안회의 세심한 손길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동생리 최성운 이장은 “고령의 주민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매년 정성껏 도와주셔서 주민들이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밖에도 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목욕과 집 안 청소, 말벗이 되어 드렸으며, 예초팀은 마을 곳곳의 잡초와 잡목을 정리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주방지원팀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칼과 낫 200여 개를 손질하고, 팔빙수 200여 그릇을 만들어 집마다 전달하며 무더위 속 작은 즐거움도 함께 나눴다.

봉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초기와 기계톱, 장판과 도배지, 각종 공구와 주방식기까지 모든 장비와 자재를 제주에서 직접 운반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소록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드리지 않겠다는 성다미안회의 오랜 원칙이 담긴 실천이다.



▲ 소록도 정비 봉사 중인 성다미안회원들의 모습

이번 봉사에는 처음으로 참여한 청소년들도 함께했다. 조천중학교 2학년 김현태 학생은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마을의 잡목을 자르고 옮기며 봉사의 참된 의미를 몸소 배울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는 나눔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성다미안회와 소록도의 인연은 여름 봉사활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1998년부터는 소록도 주민들을 제주로 초청해 문화탐방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555명의 주민과 제주에서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 왔다. 또한 겨울에는 제주 감귤을 전달하는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교류를 이어오며 단순한 봉사를 넘어 서로를 가족처럼 기억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옛 소록도 공회당 앞 성다미안회 나눔활동 기념비를 소개하고 있는
강승표 회장

이러한 진심 어린 나눔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소록도 주민자치회는 지난 2021년 옛 소록도 공회당에 ‘성다미안회 나눔활동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이는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이어온 성다미안회의 헌신과 사랑을 주민들이 직접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상징이다.

강승표 회장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하지만 소록도 나눔활동에는 매년 많은 도민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치유와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916년 한센인 강제수용이 시작된 이후 오랜 세월 차별과 편견을 견뎌야 했던 소록도. 성다미안회가 42년 동안 이어온 나눔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한센인을 향한 사회적 편견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실천해 온 시간이었다.

총연합회는 오랜 시간 한센인 곁을 지키며 변함없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온 성다미안회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러한 따뜻한 연대가 이어져 한센인의 삶에 희망을 더하고, 우리 사회가 편견 없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Q&A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6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놓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1 요양·돌봄 서비스 지원

- ☑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제공내용: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돌봄)서비스
- ☑ 제공기관

기관명	지역	입소 담당
성라자로마을	경기 의왕시	031-452-5655
여수애양평안요양소	전남 여주시	061-682-9595
안동성좌원	경북 안동시	054-852-1448
산청성심원	경남 산청군	055-973-6966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충북 오창읍	043-241-1300

- ☑ 입소비 발생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일부 시설의 경우 입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2 생계비 지원

- ☑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생활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제외
- ☑ 제공내용: 매달 약19만원(2025년 기준) 지원(본인통장)
- ☑ 제공기관: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3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

- ☑ 대상자: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제공내용 및 제공기관
 - 연구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지원
 - 연구원·지부: 의수족, 보조기, 족지, 특수화 등 맞춤형 제작 지원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진료받는 복지협회 문의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 한센인 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장수사진),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 기획·홍보 사업: 한센인 구술 기록화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5 피해보상 청구

- ☑ 대상자: 일제 강점기하 가족(2세,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피해자
- ☑ 제공내용: 피해보상 청구 관련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페이지 참조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원 안내문' 홍보물

자기혈관 숫자알기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관리!
우리 모두 건강 동행!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정상 혈압
120 / 80
mmHg 미만

정상 혈당
100
mg/dL 미만

정상 콜레스테롤
200
mg/dL 미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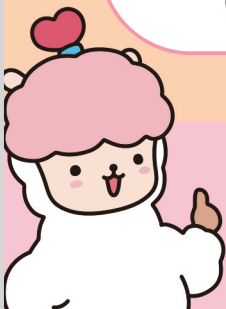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정상 혈압
120 / 80
mmHg 미만

정상 혈당
100
mg/dL 미만

정상 콜레스테롤
200
mg/dL 미만



호르몬 대사 회복, ‘당뇨병’ 관리의 첫걸음



이상열 교수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 진료분야

당뇨병(연속혈당측정기), 비만(GLP-1), 갑상선
질환, 희귀 내분비질환

글. 정유미 / 사진. 안용길 / 영상. 최의인
[출처 : 경희의료원보 프러포즈 2026년
여름호 VOL. 458 중]



당뇨병은 단순히 ‘당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말한다. 혈당 수치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식단과 운동 등으로 인슐린 작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핵심이다. 경희대병원 이상열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로부터 당뇨병 예방과 극복에 필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Q 당뇨병은 어떤 질환인가요?

당뇨병은 혈당 조절 문제로 혈액 속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본래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쓰이게 돕지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혈당이 높아지며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당뇨병으로 나누어집니다. 1형 당뇨병은 체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손상돼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경우로, 자가면역 반응과 주로 관련 있으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많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유형인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되지만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갖습니다. 여기에 체중 증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줍니다.

임신당뇨병은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 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증상과 진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며,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2형 당뇨병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도 전조증상이라 할 만한 위험신호는 있습니다. 복부비만, 체중 증가, 심한 피로감, 식후 졸림, 혈압이나 중성지방 상승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경구당부하검사 등 혈당 검사로 진단합니다.

공복혈당검사는 8시간 이상 금식 후 혈당을 측정하는 검사로, 현재 몸의 기본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화혈색소검사는 최근 약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 전반적인 혈당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구당부하검사는 포도당 음료를 마신 뒤 일정 시간 후 혈당 변화를 관찰합니다.

당 섭취 시 처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사용합니다.

0 당뇨병 치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당뇨병 치료는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혈당 조절을 원칙으로 합니다. 식사 조절, 운동, 체중 관리가 기본이고, 필요하면 약물치료를 함께 시행합니다.

당뇨병 초기에는 식사 조절과 운동 같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혈당 조절이 가능하며, 만약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를 시작합니다.

혈당이 많이 높거나 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환자의 나이, 체중, 혈당 수치, 동반질환, 합병증 여부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치료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혈당은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체중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지므로, 환자가 일상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식습관이 무너지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환자의 나이·체중·혈당 수치·동반질환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당뇨병 환자가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요?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고혈당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 손 떨림, 어지러움, 두근거림, 심한 공복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식 소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혈당이 지속되면 갈증, 잦은 소변, 심한 피로,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상처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점도 당뇨병 환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발의 상태를 자주 살펴야 합니다. 발에 난 상처를 통증이 별로 없다고 방치했다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오래 가거나 붓고 열감이 있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달거나 기름진 음식, 과식 등은 줄이고, 걷기 같은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병과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인 허리둘레,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지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특히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조금 높다’와 ‘당뇨병이다’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혈당이 조금 높다’는 것은 당뇨병 진단 기준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이를 흔히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몸의 혈당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 과식과 야식 줄이기, 정기적인 혈당 확인 등 적극적인 관리로 당뇨병을 막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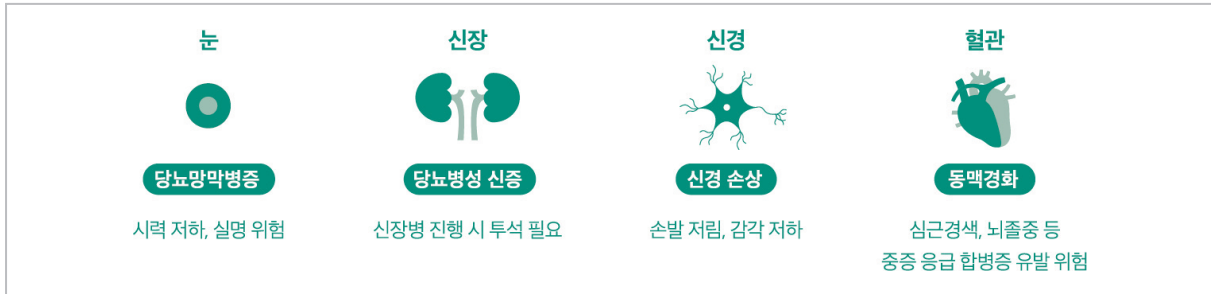


“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FACT & ACTION

당뇨 합병증 주의!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이다. 심한 고혈당은 혈관과 신경 손상을 일으켜 여러 신체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평소 혈당·혈압·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야 하며,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해 안과검사, 소변검사, 신장기능검사, 발 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FACT CHECK 당뇨병 바로 알기

단 음식이 원인이다?

물론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당뇨병에는 유전적 요인, 비만, 운동 부족, 나이, 호르몬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다?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면 약의 종류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혈당을 안전하게 잘 조절하는 것이다.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

당뇨병은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합병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꼭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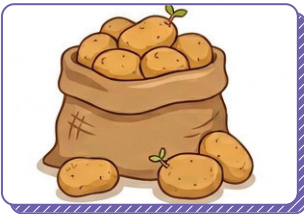
냉장 보관이 오히려 독? 의외로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 7가지

토마토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후숙한 뒤 먹기 직전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단맛이 늘고 식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온도에서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쉬워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적합합니다.

양파



습기로 쉽게 물러질 수 있습니다.
껍질째라면 통풍이 잘되는 장소가 좋고, 감자와 함께 두지 마세요.

바나나



껍질이 검게 변하기 쉽습니다.
실온 보관이 일반적으로 적합하며, 너무 익었을 때만 냉장 보관을 고려하세요.

마늘



습기로 곰팡이나 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마늘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이 좋으며, 다진 마늘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꿀



쉽게 굳어 사용하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보관 가능하고, 직사광선만 피하세요.

원두



습기와 냄새를 흡수해 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자주 사용하는 원두는 실온 보관이 유리합니다.

냉장고가 만능 보관함은 아닙니다.
음식마다 가장 좋은 보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 토마토는 후숙 후 냉장
- 감자·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
- 바나나는 실온 보관
- 꿀은 상온 보관
- 원두는 밀폐 후 실온 보관

자료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위험
요인

체온조절 능력 저하 · 만성질환 · 약물 (이뇨제, 항콜린제, 비스테로이드소염제 등) 복용



냉방기기를 사용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하고 자주 환기하기

- ☀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하기
- ☀ 냉방기기가 없거나 낮 시간대에는 무더위 쉼터 이용하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기저질환(콩팥병 등)으로 수분 섭취 제한 받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하기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 ☀ 야외활동 시 그늘에서 충분히 쉬기



더위에 대비하여 기저질환 관련 생활관리 상담하기

- ☀ 약 복용 관련 상담하고 복용 계획 세우기
- ☀ 복용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상담 내용에 따라 복용하기
- ☀ 더울 때 외출을 줄이기 위해, 복용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기



가족·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비상연락망 지니고 있기

- ☀ 안부 확인을 위해 가족, 이웃과 연락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연락하기
- ☀ 더위 노출 후 온열질환 증상(두통, 경련,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내원하거나 119 구급대 연락하기



어르신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어르신과 수시로 연락하고 건강상태 및 약 복용 확인하기

- ☀ 무더위를 대비하여 어르신과 연락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1일 1회 이상 안부 살피기
- ☀ 더위 노출 후 온열질환 증상(두통, 경련,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내원하도록 유도하기 * 의식이 없으면 119 구급대 연락하기



냉방기기를 사용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하고 자주 환기시키기

- ☀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어르신께 알려주기



요즘이책



피지컬 AI 2026

“대한민국은 피지컬 AI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CES 2026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피지컬 AI의 챗GPT 모멘트가 도래했다.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피지컬 AI 2026: 이미 시작된 미래』는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게 될지를 짚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삼성·현대·SK·LG 같은 대기업들이 가진 카드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함께 다룬다. 아울러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일자리와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까지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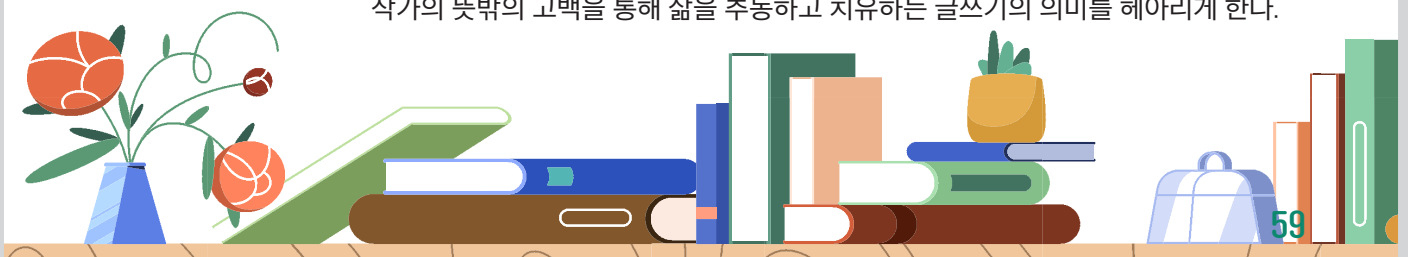


백지 앞에서

거짓 없이, 감춤 없이, 후회 없이 담대한 용기로 빛나는 순백의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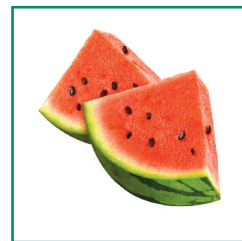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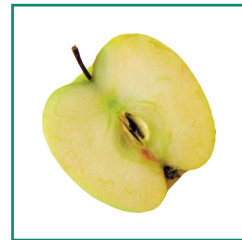
소설가 최은영이 데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산문집을 출간한다. 2024년 가을부터 2025년까지 써내려간 6편의 새로운 원고에 기존에 발표한 4편의 원고를 고치고 더해 완성한 책으로, 한 편 한 편이 단편소설에 가까운 긴 호흡으로 이어지며 최은영 특유의 “정서적 중량감”(문학평론가 서영채)을 고스란히 느끼게 한다. 첫 소설집 『쇼코의 미소』로 커다란 주목을 받은 이후 각별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장편소설 『밝은 밤』 등을 선보이며 견결한 소설 세계를 만들어온 작가는 자신의 첫 산문집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백지 앞에서』는 작가가 처음 털어놓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착취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시절에 대한 기록부터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병원을 자주 오가야 했던 지난겨울의 이야기,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짧지 않은 시간 지속되었던 외모에 대한 강박, 동물권과 세월호 참사 등의 사회문제를 아우르며 우리가 서로 연루되어 있다는 감각을 일깨우는 목소리까지, 최은영이라는 한 명의 작가이자 개인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꺼내어 보인다. 특히 표제작 『백지 앞에서』는 꽤 오랜 시간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여겨온 작가의 뜻밖의 고백을 통해 삶을 추동하고 치유하는 글쓰기의 의미를 헤아리게 한다.



한국한센총연합회와
똑똑한 두뇌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다음 중 같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다음 중 맞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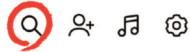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친구



한센사랑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 한국한센총연합회

채널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입니다



채팅하기



채널 추가

소식

정보

상담원 채팅

월,화,수,목,금 09:00~18:00

기관/단체 > 복지

<http://www.hansenkorea.org/>

02-1566-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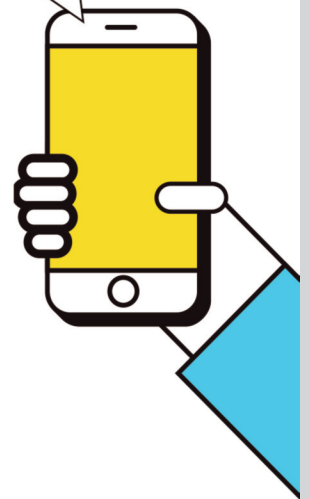
hansen@hansenkorea.org

연락처시대에도

당신의 **웃음**으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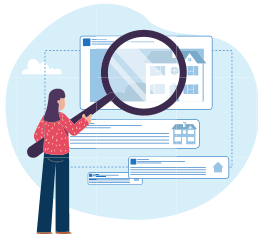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15-5501	(032)515-55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2-3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802-1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하나하나의 나눔이 모여
더큰 베품과 사랑이 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늘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